
2013-2014

CMF Trend

Pause & Re-Commence

2013-2014
Pre-CMF Trend

Pause & Re-Commence

2013/14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동안 물질적 발전 때문에 한 칸으로 밀려나 있던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이 부상하게 된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되어 친근하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Color Trend

2013/14 Color Trend는 자극적인 비비드한 컬러가 자취를 감추고, 흐릿하고 중성적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색상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색상과 에너지를 주는 가볍고 발랄한 원색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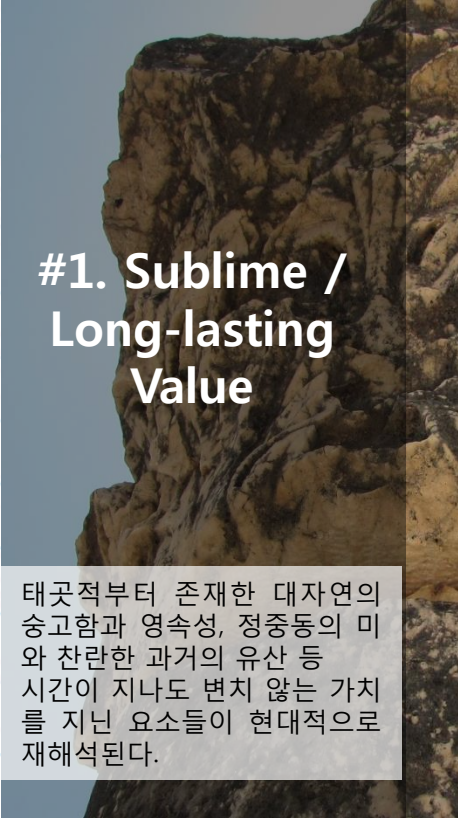
Material & Finishing Trend

2013/14 Material & Finishing Trend는 기존의 소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소재 자체에 컬러감을 없애거나, 새로운 재질감을 부여해 색다른 감성을 자아낸다. 또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소재들과 재활용 소재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소재들이 주로 발견된다.

마감은 제품의 색상과 독특한 재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와 교류를 중심에 둔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마감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2013-2014
Pre-CMF Trend

Pause & Re-Commence



#1. Sublime / Long-lasting Value

태곳적부터 존재한 대자연의 숭고함과 영속성, 정중동의 미와 찬란한 과거의 유산 등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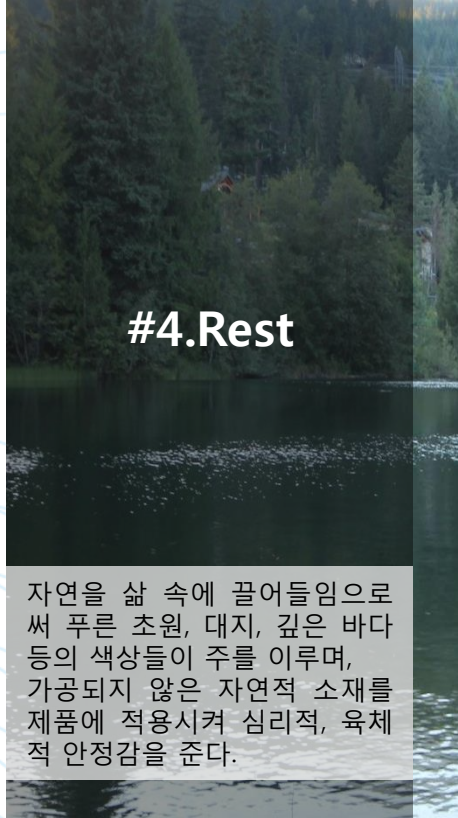
#2. Vitality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 이에 생명력을 분출하는 강렬한 마티스(Matisse)적 색감들이 등장한다.



#3. Fantasy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되면서 몽환적인 느낌의 시각적 환상들이 연출된다. 비현실적인 모습들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찰나의 일탈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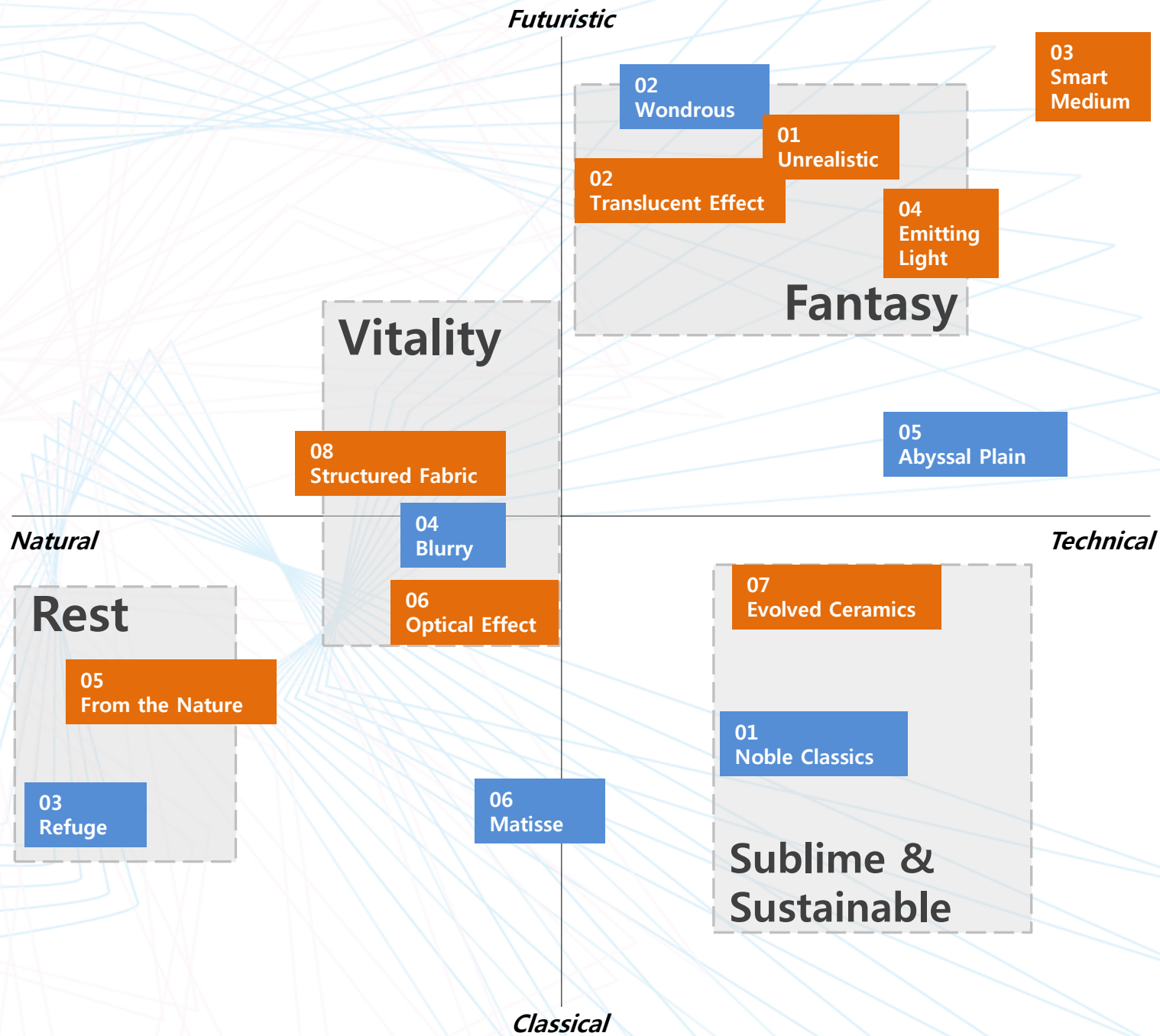


#4. Rest

자연을 삶 속에 끌어들이므로써 푸른 초원, 대지, 깊은 바다 등의 색상들이 주를 이루며,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 소재를 제품에 적용시켜 심리적, 육체적 안정감을 준다.

Trend Map

- Color Trend
- Material & Finishing Trend



Color Trend

C M F T r e n d

- 01** Noble Classics
- 02** Wondrous
- 03** Refuge
- 04** Blurry
- 05** Abyssal Plain
- 06** Matisse

Color **01**

Noble Classics

C M F T r e n d

PANTONE 9244 C

PANTONE 9241 C

PANTONE 9221 C

PANTONE DS 319-1 C

PANTONE DS 45-5 C

PANTONE DS 25-7 C

PANTONE 412 C

PANTONE 4725 C

과거로의 회기를 꿈꾸며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전통적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유백색의 크림미(creamy)한 색감들이 등장한다. 핑크와 핏이 더해져 산뜻하면서도 모던하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며, 무게감을 더하는 어두운 레드와 브라운 톤이 결합되어 진중성과 깊이를 나타낸다.



Fidelio P9, Philips
금속, 목재, 가구가 조화된 포터블 스피커이다. 가볍지 않은, 진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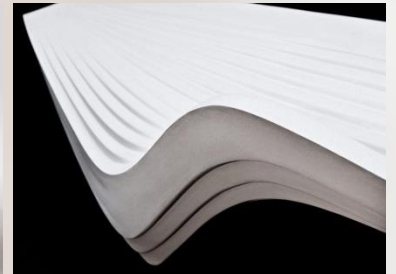
ButterStream Smart Projector Platform, AzureWave Technologies
헤어 라인이 들어간 브라운톤 메탈과 베이지톤 메탈을 조화롭게 이용한 프로젝트이다.



Q9000, Samsung Electronics
바람을 형상화한 웨이브 패턴과 함께 고급스러운 색감을 전달하는 에어컨이다.



Split Chair, Alex Hull
광택을 가진 가죽소재를 통해 고전적이면서 진중한 이미지를 가진다.



Serac Bench, Zaha hadid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화이트톤 소재와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Color **02**

Wondrous

C M F T r e n d

PANTONE DS 310-8 U

PANTONE DS 22-3 U

PANTONE DS 73-8 U

PANTONE 1635 EC

PANTONE 679 M

PANTONE 225 M

PANTONE 7541 EC

PANTONE 7458 EC

PANTONE 537 EC

PANTONE 507 EC

찰나의 심리적 자유, 일탈을 주기 위해 보이는 각도에 따라 미세한 변화를 갖는 몽환적 색상들이 등장한다. 프리즘 컬러는 차가운 환상적 느낌을 주고, 레이어드 된 다양한 톤의 파스텔은 포근한 느낌으로 동화를 연상시켜 동심을 일깨우기도 한다.



**Colorstream@,
MERCK PERFORMANCE MATERIALS**
하얀 파우더를 잉크나 페인트에 섞어서 사용하면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



Flyknit Lunar 1+, Nike
형광 빛을 품은 다채로운 색감을 사용한 운동화이다.



CMYK bulb, Dennis Parren
흰색의 메인 빛과 시안, 마젠타, 옐로우 LED가 겹쳐지고 확장되면서 동화 같은 색감이 표현된다.

Color **03**

Refuge

C M F T r e n d

PANTONE 5763 EC

PANTONE 7538 EC

PANTONE DS 303-5 U

PANTONE 8720 C

PANTONE 8342 C

PANTONE 8300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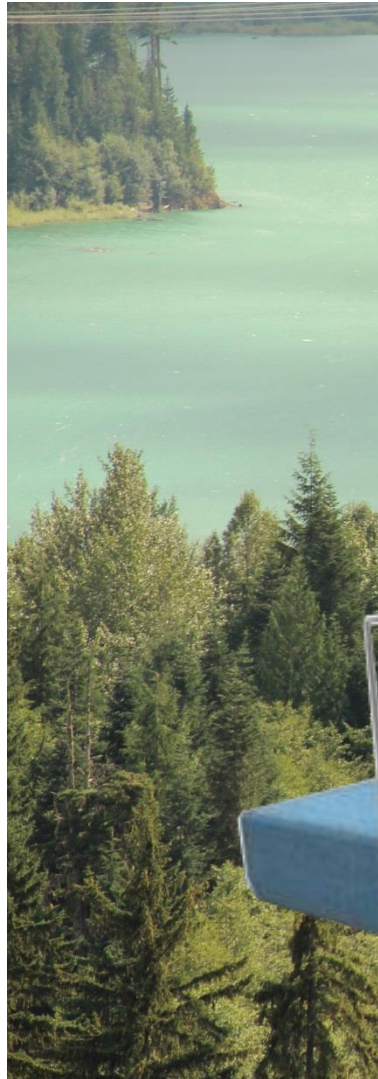
PANTONE 346 PC

PANTONE 3835 PC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은 인간의 심리적 요구는 지속된다.

하지만 비비드한 컬러 대신 형광이 가미된 민트(mint)나, 톤 다운된 그린(green)이 주를 이룬다.

민트는 시각적 상쾌함과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색이 바랜 잎사귀 같은 그린은 차분하고 편안한 안정감을 준다. 이와 함께 스킨, 레드, 블루 역시 낮은 채도로 쓰여 시각적 충돌 없이 편안한 조화를 이룬다.



Cloud Box, Studio Maarten Kolk & Guus Kusters

희미한 파스텔톤의 수납장. 부연 구름의 색감을 차용해 높은 하늘의 구름처럼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The Chest of Suitcases, Maarten de Ceulaer for Nilufar

톤 다운된 색상으로 구성된 여행가방. 노마드적 이미지와 톤 다운된 민트, 스킨 색상은 평화로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ILI-ILI, Grupa

다양한 컬러톤으로 구성된 모듈형 조명.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조합할 수 있다.



Bikini island, Moroso

모듈형 가구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지닌 가구들이 톤 다운된 컬러들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Color 04

Blurry

C M F T r e n d

PANTONE 5493 PC

PANTONE DS 244-4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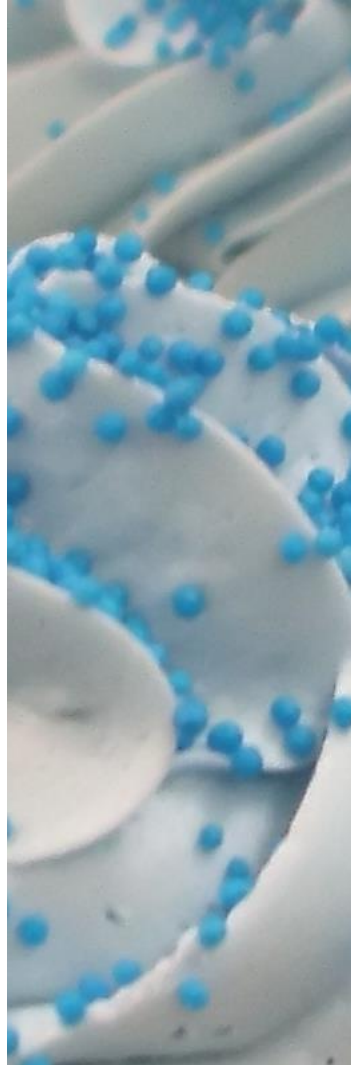
PANTONE DS 333-4 U

PANTONE DS 3-5 U

PANTONE DS 275-9 U

PANTONE DS 216-8 U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를 즐기자는 상반된 생각이 색감으로 표현된다. 차가움을 가지고 있는 블루에 약간의 베이지 톤이 더해져 두 가지 감각을 다 느끼게 해준다. 포근한 소재나 매트한 질감과 함께 따뜻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린, 옐로우 톤과 함께 산뜻하면서도 달콤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Tea with Georg for Georg Jensen, Scholten & Baijings
흰색 접시에 하늘색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며 음식을 올려놓았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시각적 재미를 더한다.

Clip Coat Hanger, Nendo
스틸로 만들어진 옷걸이. 일반적으로 차가운 느낌의 스틸에 크림미한 푸른색 색감을 입힘으로써 차가운 느낌을 상쇄시켰다.



Lunar Flyknit Chukkas, Nike
차가운 느낌의 터키석 색감과 회색이 어울려 포근한 느낌을 주며, 직물적 패턴은 날아갈 듯한 가벼움을 표현한다.



Homedia Television, Robert Bronwasser
패브릭을 이용해 차가운 TV를 감싸는 포근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형시켰다.

Color **05**

Abyssal Plain

C M F T r e n d

PANTONE 237 C

PANTONE 295 C

PANTONE 533 C

PANTONE 532 C

PANTONE 7546 C

PANTONE 8201 C

알 수 없는 생명체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깊은 심연의 바다 색으로 표현된다.
블랙보다 부드러운 블루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숨긴 것 같으면서도 무게감 있고 진중한 느낌을 준다.



2014 GT-R Coupe, Nissan
짙은 남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뤄 무게감을 표현한다.



Absolut Denim, Absolut Vodka
청바지의 질은 생지 색감을 이용해 스타일리쉬한 핏과 브랜드의 럭셔리함을 표현한다.
*생지: 가공처리가 안된 뽀뽀한 원단



iPhone 5, Apple
파란빛이 은은하게 보이는 어두움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전달한다..



Twin'z concept car, Ross lovegrove & Renault
형광빛이 나지만 강렬하지 않은 짙은 파란색은 미래적이면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Color **06**

Matisse

C M F T r e n d

PANTONE 426 C

PANTONE 7474 C

PANTONE 611 C

PANTONE 7425 C

PANTONE DS 58-4 C

PANTONE 7473 C

'본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지는 강렬한 색상으로 표출된다.
보색 대비가 돋보이는 마티스적 색감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색상 조합이 등장한다.
레드와 블랙, 민트가 어울려 원시적이면서도 도시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SHQ5200,
Philips

블랙과 오렌지 컬러가
젊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완성한다.



Sektorus Watch,
Art. Lebedev Studio
심플한 형태와 컬러가 조합
되어 모던한 느낌을 준다.



Dynamic hiking, *the north face korea*
아웃도어용 신발로,
생동감이 느껴지는 색감을 이용했다.



Lunar Flyknit 1+, *Nike*
초록, 빨강, 파랑, 검정 등의 원시적 색감이
손으로 짠 듯한 직물 패턴과 어우러져 수공예
느낌을 극대화시킨다.



Tech1, *AERIAL7*
다양한 색감의 조합으로
원시적인 느낌을 준다.



Focus Limited Edition,
Yurbuds Sport Earphones
갈고리 형태의 이어폰에
블랙과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튼튼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Material & Finishing Trend

C M F T r e n d

- 01** Unrealistic
- 02** Translucent Effect
- 03** Smart Medium
- 04** Emitting Light
- 05** From the Nature
- 06** Optical Effect
- 07** Evolved Ceramics
- 08** Structured Fabric

Unrealistic

C M F T r e n d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표출되고, 이를 반영하듯 비현실적인 효과를 주는 투명한 소재들이 부각되고 있다. 투명한 소재들이 주변환경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비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Clarity Bike, Designaffairs Studio

투명한 소재로 만든 자전거 프레임. 프레임에 쓰인 소재는 중합체로 강력한 저항과 가벼운 성질, 완만한 유연성을 가진다.



Trophy for Wallpaper Design Awards, Nendo

3차원 입체적 형태와 투명한 소재가 만나 시각적 환각을 일으켜 내부의 벽지 로고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Lumisys, Top Nanosys Korea

전기회로 없이 조명이 들어오는 투명한 필름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



Afterglow Wireless Headset, PDP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헤드 부분의 전원을 켜면 푸른빛이 들어와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

Translucent Effect

C M F T r e n d

상식을 비틀고, 통념을 깨뜨려 새로움을 추구한다.

기존에 불투명했던 돌, 콘크리트, 메탈, 세라믹 등을 반투명하게 만들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다.

Unexpected Translu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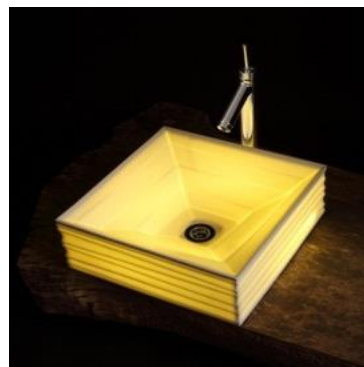
불투명한 소재를 빛이 투과될 정도로 반투명하게 만들어 조명으로 활용한다.
두꺼운 소재를 빛이 은은하게 뚫고 나오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The Speed Guard,
Gao Fenglin & Zhou Buyi
미러코팅된 얇은 두께의 알루미늄 조명.
평소에는 거울처럼 주위를 비추다가
불을 키면 전구의 형태가 보인다.



Suirin, Souhougama
세라믹으로 제작된 세면대. 불이 들어오면 반투명하게 빛을 투과시켜 은은하게 빛난다.



Lumine, Lamellux®
목재판 사이에 삽입된 광섬유를 통해서 빛이 투과된다.



Litracon, Litracon
광섬유를 이용한 반투명한 콘크리트로
빛을 투과해 유리와 같은 느낌을 준다.



Story, Ida Noemi
세라믹 도자기로 만든 조명으로,
기존 세라믹 조명과 달리 무늬를
새겼다. 빛을 켜면 세라믹의 두께감과
형태에 의해 명암이 생기면서
패턴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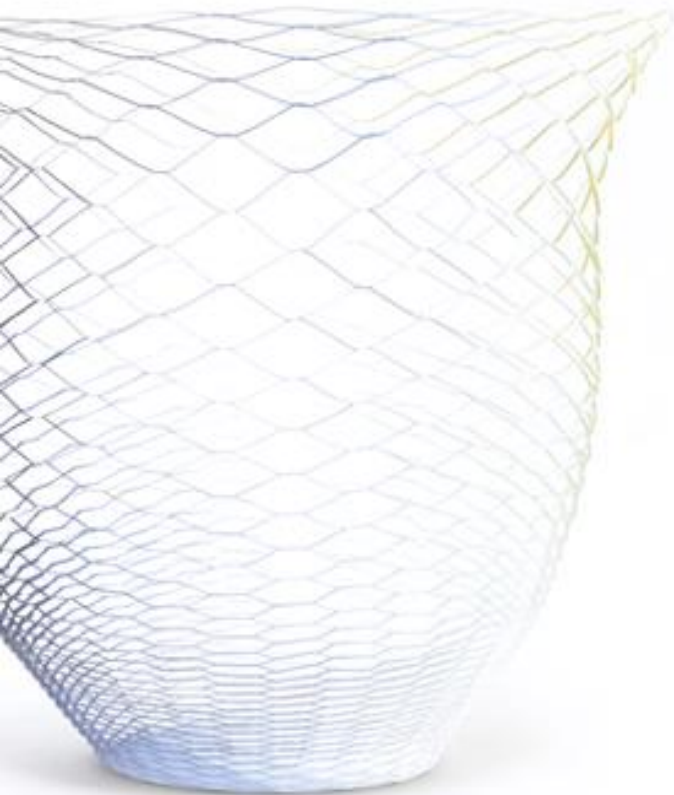
Translucent Effect

상식을 비틀고, 통념을 깨뜨려 새로움을 추구한다.

기존에 불투명했던 돌, 콘크리트, 메탈, 세라믹 등을 반투명하게 만들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다.

Layered Pattern

불투명한 소재를 얇기 설기 엮어 여백을 줌으로써 투명하게 만든다. 재료와 재료 사이에 공간이 생성되어 가볍고 시원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패턴은 주변환경 속에 흡수 된다. 공간에 스며들 듯 배경을 비추면서 그 위에 패턴을 입혀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Gradation and Cube Air Vases, *Torafu Architects*

종이를 그물 형태로 잘라 여백을 만들고, 그라데이션 컬러를 칠하여 유리처럼 투명하고 연약한 느낌을 연출한다.



PaleoBarefoots, *Gost barefoots*

스테인리스를 그물 형태로 엮어 만든 신발.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발을 보호하면서도, 설긴 구조 사이로 바람과 흙을 느낄 수 있다.



Mimicry Chairs, *Nendo*

철로 만들어진 의자. 반투명하게 만들어 공간 속에 스며드는 효과를 준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기계처럼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소재들이 등장한다.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특정 자극이 가해지면 스스로 형태를 이루는 등 소재의 질감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특성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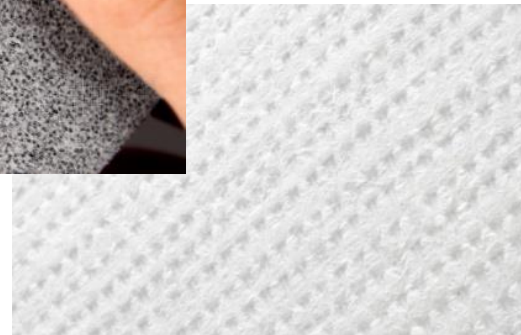
Smartsponge, *Smart Sponge*®

기름만 흡수하는 스펀지로 오염물질을 흡수하면 고체 상태로 굳는다. 석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Hydrocarbon)에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오염수에 섞인 기름과 부유물질을 걸러낸다.



3PV(Printed Paper Photo Voltaics), *TU Chemnitz*

일반 종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태양전지로 일반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출력물 자체가 태양전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에 활용할 수 있다.



Permasorb Wallpaper, *SARATECH*®

오염물질 흡수하는 벽지,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지속된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기계처럼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소재들이 등장한다.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특정 자극이 가해지면 스스로 형태를 이루는 등 소재의 질감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특성이 된다.

Self-Cl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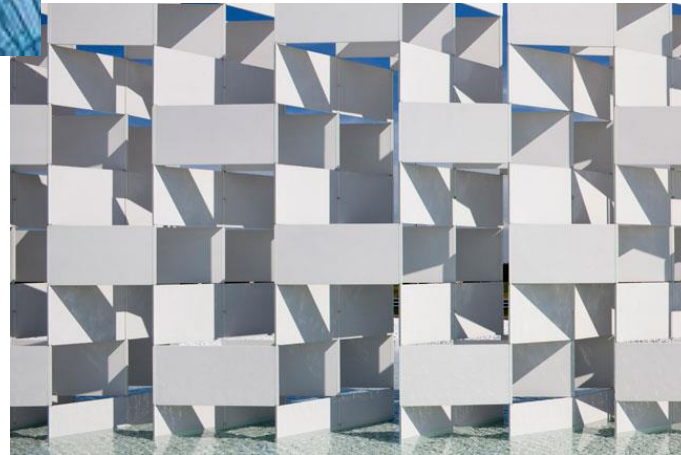
스스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셀프 클리닝 소재가 등장한다.
쉽게 닦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옷감, 스스로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유리 등 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셀프 클리닝 소재가 적용된다.



Active Self-cleaning Glass, Pilkington UK
셀프클리닝 글라스. 먼지를 햇빛으로 분해시키고, 비로 씻어 보낸다.



Self-cleaning Clothes, NSRDEC Public Affairs
군복의 새로운 소재 기술로 세탁이 필요 없다.



Bios Self-cleaning Ceramics, Casalgrande Padana

티타늄 이산화물의 광촉매 반응으로
셀프 클리닝이 가능한 세라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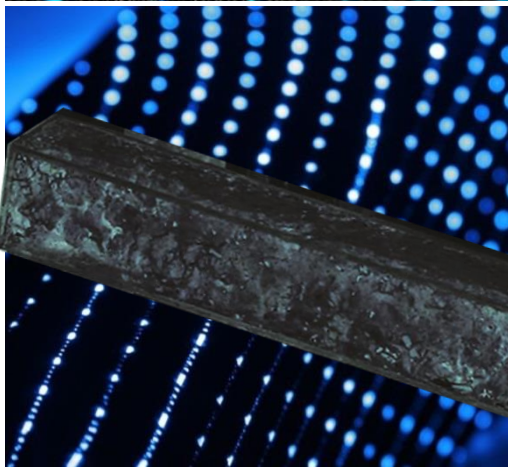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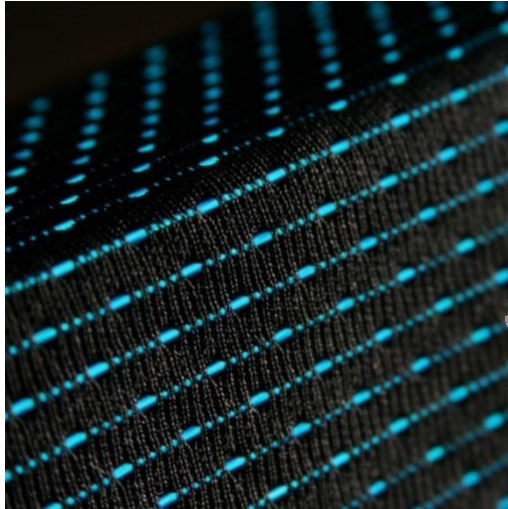
Liquid-infused, Wyss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탄성력을 이용해 액체를 흘려 보내거나 고정시킬 수 있는 소재다.

Emitting Light

C M F T r e n d

스스로 빛을 내는 요소들이 일반적인 소재들과 결합하여 제품을 드러낸다.
섬유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정한 조건에서만 빛을 발하기도 한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일반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제품을 강조하는 동시에 훌륭한 패턴이자 장식이 된다.



**LumenBios
-Bioluminescent table,
Dagny Rewera, RCA**

투명한 관 내부에 있는
생체발광 곰팡이가
어두워지면
빛을 낸다.



**Light Emitting plastic,
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 Bart van Overbeeke**
당길 때 빛을 방출하는 플라스틱.
내부 광원이 찢어지면서 빛을 낸다.



Gravel Floor, S. Lövenstein BV
형광물질을 섞은 자갈 마감재.
건물 바닥에 설치하여 불을 켜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Wovenit, Wovenit
천 소재로 2차원과 3차원 형태로 제작 가능한 빛을 낸다.

자연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색상 외에 소재에서도 드러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인간은 콘크리트 정원이라는 개념을 빌려 도심 속에 인공 자연을 조성했다. 일상에서도 자연의 감성을 접할 수 있도록 자연의 속성을 제품에 그대로 적용시켜 천연 소재의 색감, 재질감, 냄새 등을 가감 없이 느끼도록 한다.

Aesthetics of Nature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색감과 질감을 화학적 가공 없이 거의 그대로 제품에 적용한다.

인위적 요소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을 마주함으로써 특성 물질로부터 벗어났다는 안전함과 소재가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Marine Light, Nir Meiri
해조류를 그대로 이용한 조명이다.



Salmon Leather, *ES-Salmonleather*

Portable premium headphone T50P, *Beyerdynamic*

연어 가죽을 이어 붙여 50cm 롤 형태로 만든다.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천연 탄닌으로 숙성시키는 유기농 제품이다. 헤드폰 전문 브랜드 Beyerdynamic과 콜레보레이션으로 연어 가죽을 덧댄 T50P 헤드폰 모델을 출시하였다.

Cork Textiles, *Material ConneXion Inc*

천연 코르크 소재로 셀룰로오스와 합성 부직포를 섞어 만든 안감 위에 코르크 코팅을 한다. 다양한 코르크의 패턴과 색상을 제공하며, 저자극성, 내마모성, 방수 및 먼지와 흙이 묻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연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색상 외에 소재에서도 드러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인간은 콘크리트 정원이라는 개념을 빌려 도심 속에 인공 자연을 조성했다. 일상에서도 자연의 감성을 접할 수 있도록 자연의 속성을 제품에 그대로 적용시켜 천연 소재의 색감, 재질감, 냄새 등을 가감 없이 느끼도록 한다.

Transforming

비용과 자원 절약, 지속 가능성이 큰 화두가 되면서 사용성을 잃어버린 소재 또는 버려진 물건을 이용한 재활용이 주목 받고 있다.

이때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거나, 화학 물질을 첨가해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다른 소재로 탈바꿈 시키기도 한다..



Well Proven Chair, Marjan Van Aubel and Jamie Shaw

목재 폐기물로 재창조한 의자.
버려진 목재를 톱밥으로 만들어 바이오 수지를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비정형적인 조형과 마감처리, 바랜듯한 색감은 오래된 암석과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Ecocradle, EcoCradle®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버섯균사체로 만든 친환경 포장 소재.
버섯 뿌리부분을 뭉쳐서 별도의 가공 없이 틀에 찍어 만들었다.



Abacá, Lamin-Art(The Art of Laminates)

바나나 섬유를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로,
까칠한 재질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벽체나 바닥에 사용한다.

Optical Effect

C M F T r e n d

컬러만으로 시각적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소재의 입체적 패턴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소비자와 교류한다. 특히 본 소재의 특성을 숨기거나 조각적인 패턴으로 제작된 소재들은 인테리어나 오브제로 활용되어 소비자에게 놀라움과 편의성을 선사한다.

Pop-up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소재를 이용해 촉각적으로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동일한 소재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시각과 촉각을 일치시키거나, 서로 다른 소재를 활용해 시각과 촉각의 차이를 드러내 의외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Optical Tile™, Ombræ™

금속표면을 가공하여 3D캔버스로 변환시켜, 인테리어는 물론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하여 3D홀로그램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디자인 시스템이다.



3D-design, Laser4art

열가소성 필름을 다층으로 겹친 후 진공 레이저로 3차원으로 패턴을 장식한 것으로, 솔질 처리된 스테인리스 표면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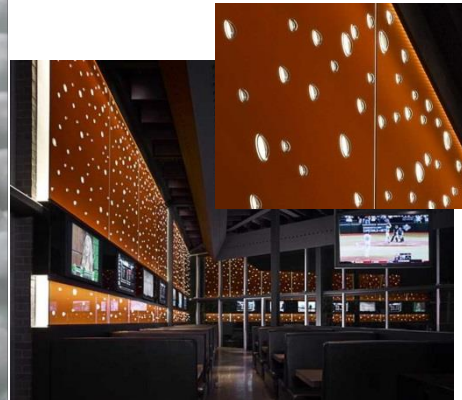
Spillo Oro, Rossi Oliviero &c. SRL

내화성을 지닌 스테인리스 소재의 텍스타일을 제작, 표면에 금색 두정을 두어 장식적인 면을 더했다.



Cush, Jennifer Prichard

3차원 입체표면으로 된 도자기 타일이다.



Bubbly Glass Panel in Republic Gastropub, Elliott + Associates

맥주의 거품을 연상시키는 유리패널 디자인 작품으로, 투명한 유리 반구를 갈색 유리 패널에 붙여 입체 효과를 주었다.

Optical Effect

C M F T r e n d

컬러만으로 시각적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소재의 입체적 패턴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소비자와 교류한다. 특히 본 소재의 특성을 숨기거나 조각적인 패턴으로 제작된 소재들은 인테리어나 오브제로 활용되어 소비자에게 놀라움과 편의성을 선사한다.

Reflection Effect

반사되는 소재의 특성과 얼음,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등의 조각적 형태감이 결합되어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표면의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은은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시원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다.



R-Cast® Ice, Reynolds Polymer Technology

얼음 표면의 패턴과 질감이 그대로 표현된 아크릴 소재. 두께가 0.5~1인치로 얇아 빛 투과성이 높고 빛의 색이 은은하게 투과되며,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다.



Crackle, NATHAN ALLAN GLASS STUDIOS INC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영감을 받은 유리 인테리어 디자인. 비정형으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녹여 접합시킨 표면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판유리(Clear)와 저철분 유리(Low Iron) 총 2가지 소재로 제작하며, 얼음처럼 반짝거리고 입체적인 표면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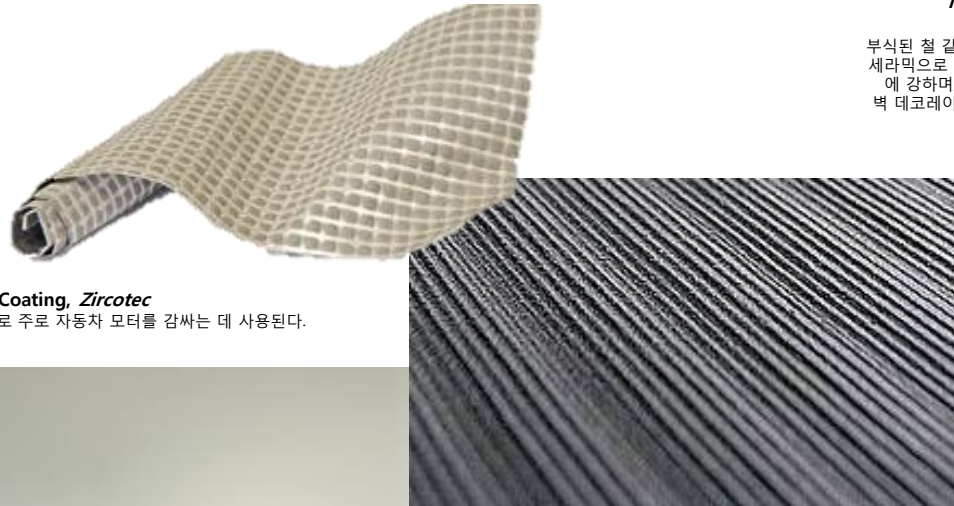
Jali® Panels, Sensitile Systems

크리스탈의 입체 효과를 주는 경량 폴리머 소재의 반사패널. 여러 방향에서 빛을 반사해 크리스탈 효과를 주며 아크릴과 처리 방식이 비슷하다.

Evolved Ceramics

C M F T r e n d

세라믹은 주로 도자에 사용되는 원료로,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세라믹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과 결합되어 진보된 세라믹(Evolved Ceramics)이 탄생한다. 가볍고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특징을 그대로 보존해 난로나 모터, 벽체 등에 활용하며, 세라믹 특유의 유백색 컬러를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Flexible Ceramic Coating, Zircotec
플렉서블한 세라믹으로 주로 자동차 모터를 감싸는 데 사용된다.

Corten Ceramic Tile, Tau Ceramica Taulell S.A.

부식된 철 같은 느낌을 주는 세라믹으로 불과 날씨, 흠집에 강하며, 주로 바닥이나 벽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된다.



Artech Strutturato, Ceramiche Refin S.p.A.
메탈릭한 컬러감을 가지는 세라믹으로 스크래치에 강해 주로 바닥재로 사용한다.



CookinStack, Adriano Design
열에 강한 세라믹의 특성을 살려 스토브 외관에 사용되었으며, 특유의 색감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Flowercircle, KENZAN Co.,Ltd.
세라믹 특유의 유백색 유닛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ELC-U7, U9, Krizer
내구성이 강한 세라믹을 적용한 이어폰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Structured Fabric

C M F T r e n d

패브릭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소재지만,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전과 다른 구조적인 형태를 갖는다. 부드러운 본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러 겹을 겹쳐 조각적인 느낌을 내고, 특수 가공을 거쳐 불에 강한 소재로 변형시키면 불이나 빛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BUFA, Mowo studio
퍼프 주름을 의자에 적용한 의자로, 구조적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의자다.



Lodenofen, Attika-FEUERKULTUR
기존 패브릭 소재에 기술을 결합해 불에 잘 견디게 만들었다. 벽난로 외벽에 부착함으로써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Hood, Form Us With Love & Atelje-Lyktan

패브릭으로 만든 조명 후드로 모듈형으로 제작되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패브릭이 빛을 감싸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Modular System, Formkind

다각형 형태를 띤 방울 패널로, 패브릭을 이용해 촉감은 부드럽지만 시각적으로는 단단한 조각적 느낌을 준다.

기획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www.designdb.com

총괄책임

손동범 디자인전략연구실장

실무책임

채윤병 전략연구팀장
이현주
구 슬

연구책임

메타트렌드미디어그룹 www.themetatrend.com
유인오 대표
민 희 실장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Tel. 031-780-2035
kidp@kidp.or.kr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디자인전략정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자인트렌드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연구, 분석
목적으로 쓰여 졌으며 출처는 각 보고서
뒷부분 첨부 참조 사이트에 표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및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시행한 '디자인전략정보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2013 All rights reserved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METATREND Media Group

2013-2014

CMF Trend